



하나금융투자

필룩스 바이오부문 설명회

하나금융투자는 14일 하나금융투자 본사 3층 한마음홀에서 필룩스바이오부문 설명회 및 기업 IR을 실시했다. 필룩스는 조명 기기와 전자부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중속회사인 미국 바이오업체 리미나투스파마(Liminatus Pharma, LLC)의 지분을 100%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설명회는 신규 바이오 기술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보 및 인수를 통해 바이오 부문의 사업을 확장하는 필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스콧월드만(Scott Arthur Waldman) 필룩스 회장이 회사의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고, 안원환 필룩스 대표이사사는 바이오 부문 전망을 제시했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인버스 2X 니켈선물’ 상장

대신증권은 1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상장되어 있는 니켈선물의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해 구조화한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향후 니켈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국내투자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최근 니켈 시장은 단기금동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화 긴축 그리고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로 가격조정이 예상된다.

이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이며, 연 1.5%의 제비용이 발생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금’ 투자하는 레버리지 ETN

신한금융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레버리지 ETN을 14일 신규 상장했다.

이번에 상장한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 ‘신한 인버스 2X 금 선물 ETN’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의 일간 수익률의 2배, -2배를 각각 추종하는 상품으로 DJCI 2X Leverage Gold TR 지수와 DJCI 2X Inverse Gold TR’을 기초지수로 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가장 많은 농산물 및 원자재 ETN 상품을 시장에 공급 중이며 금 선물, WTI원유, 다우존스, 미국달러, 은 선물, 천연가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증권사, 올 실적 ‘순풍’... 낮은 ROE는 속제

(자기자본이익률)

개인 주식 활성화로 거래대금 상승
신용거래용자 사상 최대치 경신 등
10년째 제자리걸음 ROE 개선 필요

〈주요 증권사 2분기 실적 추정치〉

(단위: 억원, %)

종목명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추정치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삼성증권	2,369	881	667	2,808	1,260	846	18.5	43.1	26.8
미래에셋대우	4,436	1,748	1,636	4,909	2,147	1,751	10.7	22.8	7.0
한국금융투자	2,100	1,722	1,246	3,851	1,962	1,336	83.4	13.9	7.2
키움증권	1,561	879	725	1,665	964	726	6.7	9.6	0.1
NH투자증권	3,322	1,471	1,069	3,430	1,583	1,227	3.3	7.7	14.8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 /자료=에프엔가이드

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9916억원으로 올해 1월(15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10조34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6% 증가했다. 개인 거래대금 비중은 78.8%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아울러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2조 623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5.5% 증가했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을 뜻한다. 증권업계 평균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은

상환기간별에 따라 연 6.65%~9.44%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은 신용거래용자 증가 덕을 토포했다. 이들의 1분기 이자 수익은 각각 684억원,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35.10% 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가는 증권업계지만 마냥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10년째 제자리걸음하는 ROE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본규모가 3.6배 늘어나는 동안 당기순이익은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

터는 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 적용,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입 등이 시작되는 만큼 ROE 증가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증권사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진행해 왔다. 특히 IB 부문의 영업수익은 꾸준히 늘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7곳의 자기자본 대비 IB수익은 1.5%에서 지난해 3.9%로 2.5배 늘었다. 하지만 해당기간 ROE는 12.2%에서 9.3%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에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IB관련 빅 딜(Big deal)은 대형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효율성 제고는 의미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인수합병(M&A) 중개 등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부문에서 수익은 여전히 작고, 자기매매 수익도 주가연계증권(ELS) 운용과 헤징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면서 “증권사들은 자산관리, 고수익구조의 기업금융서비스, 기관투자자 대상 맞춤형 중개서비스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지방선거도 북미정상회담도 ‘끝’... 주택 공급 기지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분양 재개 전망
이번주 성적이 향후 바로미터 될 듯

〈5대 광역시 여름(6~8월) 주요 분양 단지〉

사업명	위치	총가구(실)	분양시기	건설사	문의
대구 연경 아이파크	대구 연경지구 C-2 블록	792	6월	HDC현대산업개발	053-981-3456
동래3차 SK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아파트: 999 오피스텔: 444	6월	SK건설(주)	1588-2262
중구 복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울산 중구 중산동	2,591	7월	동부토건, 진흥기업, 효성	02-707-5934
계림7구역 두산위브	광주 동구 계림동	908	7월	두산건설	02-3441-1700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	3,853	7월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051-555-3690

/자료=부동산114 및 각사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이 끝나면서 아파트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봄철 성수기 동안 건설사들은 분양 대행사 건설업 면허 취득 및 대형 이슈로 분양 시기를 늦췄다. 분양 성수기를 허송세월한 건설사들은 공급을 쏟아낼 테세다. 지난주 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내놓았던 건설사들은 당장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등 8곳을 준비 중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8월에 전국에서는 8만4516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전체 분양물량(42만548가구)의 약 20%다. 같은 기간 2015년(9만5778가구), 2016년(9만9084가구), 지난해(7만8237가구)보다는 6300여가구 증가한 수치다. 최근 건설사들이 각종 이슈에 묻혀 분양 성격 저조를 우려해 분양 시기를 늦췄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월드컵 기간에도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공급이 몰려 있어 향후 분양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분양물량이 적지 않아 지역 및 단지, 상품 등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규제로 지방광역시에서도 청약자격 제한 및 대출, 전매제한 등과 보유세 인상 움직임도 부담이다. 또한 1순위 청약자 수 감소로 수요자들도 신중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단지 및 상품, 추후 가치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옥석

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이번 주 분양 성적이 향후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48~118㎡, 1824가구 중 864가구(일반분양)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2차’ 74~125㎡, 2255가구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69~84㎡, 1187가구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 ‘삼송더샵(오피스텔)’ 59~84㎡, 318실이 관심 대상이다.

이어 여름 분양시장을 강타할 물량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6월 선보

이는 대구 연경지구 C-2블록 ‘대구 연경 아이파크’ 84~104㎡ 792가구 ▲SK 건설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선보이는 ‘동래 3차 SK뷰’ 아파트, 999가구와 오피스텔 444실 ▲동부토건과 진흥기업, 효성 컨소시엄이 7월 선보이는 울산 ‘중구 복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9~84㎡ 2591가구 ▲두산건설이 7월에 분양하는 광주 동구 ‘계림7구역 두산위브’ 59~84㎡, 908가구 중 660가구(일반분양)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7월에 공급하는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59~114㎡, 3853가구 중 2485가구(일반분양) 등이 관심 대상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광명 소하지구 개발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롯데건설,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주

총 공사비 약 4800억원 규모
KTX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광명 역세권 일대의 KTX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하나바이온이 발주한 이 사업은 총 공사비 약 4800억원(VAT 포함)의 복

합 프로젝트다.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광명시 일직동 89 일원)과 소하지구 개발사업(광명시 소하동 1344 일원)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시공주공사(55%)로서 두산건설(45%)과 총 연면적 약 35만㎡ 규모를 공동 시공한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학종합병원, 기숙사,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약 18만㎡ 규모로 개발되며, 중앙대학교 병원이 들어선다.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분양대상으로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사업은 광명시의 오랜 염원인 대학종합병원 유치에 이루어낸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첨단 의료 및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